

한국형 AI를 개발하라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중국발 AI가 무적이라던 AI 강국 미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만에 17%로 떨어졌다. 연초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환호 속에 기조연설을 하며 AI의 미래를 제시했던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제너 황 그리고 세계 최강 AI 강국을 열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혹감에 빠져 전격 회동을 했다.

챗GPT로 새로운 AI시대를 선도하던 오픈 AI의 샘 올트만도 메타(Meta)의 저커버그도 충격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빅테크가 쓴 개발비용의 10분의 1 수준의 80억원(557만 달러) 정도로 챗GPT와 같은 수준의 AI 딥시크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딥시크는 미국 AI 기업이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첨단 AI반도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중국 화웨이가 개발한 산 AI반도체 칩을 사용했다. 저가의 반도체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미국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다.

딥시크 충격이 있기 전 이미 딥시크 열

을 다운받아 사용해 본 필자는 딥시크의 성능이 챗GPT에 버금간다는데 놀랐다. 개발사의 보고서엔 개발학습 기간이 두 달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 더 놀랐다.

그런데 필자는 이미 중국 AI 굴기의 성공을 예견하고 있었다. 2017년 중국 정부는 '차세대 AI발전계획'을 내 놓고 2030년 AI 최강국을 목표로 막대한 투자를 해 왔다. 중국은 2023년 기준 140조원을 투자했고, AI 연구 논문 수에서 세계 1위로 부상했다.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화웨이(Huawei) 센스타임(SenseTime) 등 중국 AI 기업은 급성장했다. 2023년에 화웨이는 7나노미터 공정의 AI 칩 개발에 성공해 중국 반도체 자립 가능성을 보여줬다.

정부투자에 시장경쟁력 그리고 기술력마저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을 따라잡았으니 약간의 시차만 있지 오늘은 이미에 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 놀랄 일은 이런 AI 대기업 외에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AI 창업기업들이 탄생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해 가고 있었다. 딥시크 창업자 양원평도 그 중 하나였다. 중국 저장대 출신으로 2015년부터 대학동창들과 사업을 하다 2023년 딥시크를 창업했고 AI 모델을 발표했다.

해외유학파를 단 1명도 고용하지 않고 200여명의 국내 기술인력을 모아 딥

시크 개발에 성공하는 신화를 썼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개발한 기술의 오픈소스도 모두 공개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다. 이렇게 중국이 발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 바로 그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국 정부는 첨단에 4차 산업혁명을 떠들고 있었음에도 세계 강국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 와서 최악이었다.

삼성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중국이 절대 한국의 기술을 따라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자만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들도 국내 독점에 안주했다.

AI도시 광주도 이제 데이터 인프라를 만드는 수준이다. 그 중 신진 AI창업자들이 나타나 혁신적 개발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투자수준은 미흡하다.

사실 국내에도 중국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한국형 딥시크 AI를 개발한 싹은 많다. 문제는 정부다. 문제는 대기업이다. 한국도 광주도 챗GPT 딥시크를 능가하는 AI를 개발할 자력은 있다. AI 최강 국가와 지역을 만들려는 의지와 계획, 투자와 상상력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이다. 어서 새정부가 등장해 한국형 AI 개발에 매진하길 간절히 기대한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社說

광주공항 임시국제선 갈등비화 안된다

위기 타개, 신중하게 접근해야

광주시가 지역 여행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운영'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 최근 제주공항 참사로 인해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지역 여행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다. 지역 여행업계의 여행상품의 90%가 무안공항에 집중돼 있다. 공항 폐쇄로 인해 올해 1~2월 대형 여행사를 제외한 광주 관내 137개 여행사들의 예약취소 건수는 1800건에 이르고, 매출 손실액은 3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는 게 여행업계의 설명이다.

사고 이후 5, 6월까지 여행 예약률이 0%인 상황이다. 광주시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은 지난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 간담회'에서 무안공항 폐쇄에 따른 광주 관내 여행사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지원책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지역 여행업계 고사 위기 타개책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허용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자칫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 여행업계는 생존을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까지 나서서 정부에 공식 건의한 건 공항 갈등의 발미를 제공한 성급한 접근이라는 시각이다. 임시 운항 역시 현실성이 낮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허용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광주공항도 안전시설물 강화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무안공항은 8월 재개항될 텐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허겨 절차도 그 정도 걸린다'며 사실상 임시운항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라리 무안국제공항의 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재개항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인다. 광주·전남은 갈등의 뇌관이 될수 있는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현안이 잔존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여행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신중한 접근이다.

거문도, 미래세대 물려줄 유산 만들어야

여수 근대역사공간 조성 첫 발

여수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삼산면 거문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섬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반영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기명 여수시장의 설명이다. 독특한 지형과 역사·문화 유산, 생태적 중요성을 지닌 거문도가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거문도 일대는 1885년 영국군의 점령 사건 이후 항만과 군사시설 등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지난 2022년 8월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2024년 7월에는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종합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해 확보한 1차 연도 국비 7억 4000만원을 들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학술 조사연구와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록 문화유산 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문도를 단순한 관광지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만

들어 가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거문도는 7000만 년 전 화강암이 융기하며 형성된 독특한 지형과 청정 해역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관을 갖춘 생태 관광의 핵심 자원이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흔적과 함께 아시아 유일의 영국 해군 기지인 포트 해밀턴의 유적이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도 높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멸종 위기종인 붉은바다 거북과 상괘 등이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의 보고이면서 오랫동안 주민사이에 전승돼 온 독특한 민속 등도 학술 자료로 보존하고 계승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무분별한 개발 등은 거문도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여수시는 보존형 관광 지침을 준수해 거문도가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유출을 막는 지역 공동체 재생 프로그램이 첫걸음이다. 국제적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해야 한다. 거문도를 미래 세대에 남겨줄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경찰관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건물 잔해를 살피고 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번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4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서석대

문학의 원초적인 형태인 구비문학(口傳文學)은 '말로 된 문학'을 의미한다. 글로 된 기록문학과 구별되며, 다른 말로 구전문학(口傳文學)이라고도 한다.

구비와 구전은 대체로 같은 뜻이다. 굳이 구별하자면 구전은 '말로 전함'을 뜻하는데 그치지만, 구비는 대대로 전하여 오는 말이라 할 수 있기에, 구전문학보다 구비문학이 더 적절한 용어다.

구비문학은 예로부터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많고 많은 구비문학 가운데 이름만으로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 있다.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투쟁의 횃불을 내려놓지 않았던 백발의 민주투사 백기완 선생이 민중 설화를 토속어로 풀은 '장산곶매 이야기' (우등불 1993)이다.

맏판 바람결에 갈기머리 휘날리며 시위 현장 맨 앞자리에서 호령했던 백기완 선생은 투쟁 현장에서 돌아오면 어김없이 민족혼을 일깨우는 글을 썼다. 이렇게 펴낸 책들이 무려 서른 편에 달한다.

'장산곶매 이야기'는 황해도 구월산 장산곶의 마을수호신인 매에 대한 구전이다. 대강은 이렇다.

어느 날 장산곶에 집채만한 독수리가 날아와 마을을 쑥 대밭으로 만들었다. 애써 키운 짐승들을 잡아가고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채 갔다.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데, 장산곶매가 날아올라 맞대하면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징과 팽과리를 치며 매를 응원했다. 하지

만 애초부터 독수리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매는 사력을 다했지만 힘이 달려 피투성이가 됐다.

그러나 매에게 단 한번의 기회가 왔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편 순간 가슴팍에 파고든 매는 있는 힘을 다해 날개죽지를 찌었고, 그 날카로운 부리에 날개가 꺾인 수리는 땅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지만, 생명을 다한 매는 어느 순간 하늘로 높이 올라 멀리 사라졌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로 장산곶매가 캄캄한 밤하늘에 대고 '딱'하고 부리로 쪼기만 하면 셋별이 하나 생기고, '딱'하고 쪼기만 하면 또 셋별이 하나 생겨 길 잃은 나그네의 길잡이가 됐다고 한다.

백 선생이 어머니의 무릎위에 앉아서 들었던 이 서사는 나중 영화패 동아리 이름으로 쓰였고, 황석영의 소설 '장길산' 서막에도 인용됐다.

작년 12월 3일, 시대착오적 망상속에 흉악한 패악질을 해댄 무리들로 하여 두 달이 넘도록 '징한 꼴'을 보고 있다. 그날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가 생중계로 폭거를 지켜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씨도 안 먹힐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조사와 재판이 길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깁깁중'은 더해지고 율화가 치민다.

언제나 이땅에 음습한 어둠이 갈려 형형한 날이 올 것인가. 백기완 선생의 서릿발같은 일갈, 그리고 민중의 이야기가 그림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